

# “세계수영대회 일회용품·플라스틱 사용 줄이자”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시의회 제안

페트병 생수 아닌 수돗물 공급  
선수단 등에 텀블러 무상 제공  
응원도구 비닐·플라스틱 사용 없기  
경기장 쓰레기 줄여 친환경 대회로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7월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친환경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플라스틱 컵·페트병 등을 사용하는 기존 대회와 달리 다회용컵이나 차량용 급수시설을 제공해 세계인들과 환경보호에 나선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일회용품·플라스틱 없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간담회'를 열었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최하고 환경부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봉사센터 등 광주의 각계 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고, 사용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광주시 5개 자치구 재활용선별장의 운영 또한 과부화 상태”라며 “친환경 수영대회를 만들기 위해 페트병에 든 생수를 제공하기보다는 마시기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광주시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기간에 플라



지난 27일 광주시의회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열린 '1회용품, 플라스틱 없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간담회'에서 패널들이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스틱 병에 담은 수돗물인 '빛어울수'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차량을 경기장과 시청 앞 광장 등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시청 앞 광장에는 수돗물을 신뢰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돗물과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관을 만들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선수와 임원, 자원봉사자, 시민 서포터스에

게 무상으로 텀블러를 제공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장 내에서는 비닐 및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응원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선수촌과 경기장의 선수와 임원에게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용품 사용제한과 더불어 쓰레기

감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 수영선수권 대회라는 이미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용집 수영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기관과 시민이 동참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대표적인 친환경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신종·미기록 이끼 13종 발견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이끼 12종이 발견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15~2018년 동안 국립공원 해양생태축 기본조사에서 발견한 총 13종의 신종 및 미기록종을 지난 2월 '국가생물종목록'에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생물종목록'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007년부터 매년 발굴된 자생생물 신종, 미기록종뿐만 아니라 국내외 문헌 정보를 조사 및 분석해 만든 생물종 목록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5만 827종이 등록돼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015년부터 '국립공원 해양생태축 기본조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7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안도, 소안도, 청산도, 하조도에서 태형동물 신종 6종, 미기록종 6종, 2017년 7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어유도에서 산호충류 미기록종 1종을 발견했다. 태형(이끼)동물문인 신종 6종은 숨은툼니파리아기벌레, 아시아그물기벌레, 작은관절기벌레, 활모양털기벌레, 아직 국명이 없는 2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사업 12개 시·군 성과 평가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 10월까지 수계기금 사업을 시행하는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8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금사업은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중이다.

기금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물 이용 부담금(1당 170원)으로 조성되며, 조성된 기금(2019년 842억)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재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 등에 사용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5억원 이상 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144억원)·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192억원)·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22억원)·생태하천복원사업(29억원)·비점오염저감사업(12억원) 등 5개이다. 평가항목은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예산집행의 효율성·사업관리실태 등 9개 항목이다.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는 상금(총 1000만원) 지급 및 예산중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사업의 예산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방법 등에 대한 “방문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목포해경, 해상 부유물 예인 조치 '충돌사고 예방'

육상으로 옮겨 폐기처리

최근 해양쓰레기가 이산화되면서 전남도가 해양쓰레기 제로(Zero)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규모 양식장 쓰레기가 바다 위를 부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경은 “진도군 바다 위에서 김양식 부표 등 형태의 부유물이 있어 목포해경이 긴급 예인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22일 낮 12시 30분께 진도군 관매도 남동쪽 20km 바다위에 미상의 부유물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인근을 행해하던 A호(2460t, 가스선)의 선장이 미상의 부유물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김 양식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와 막대기·그물·밭줄 등이 엉켜있는 목치(길이 60m, 폭 10m, 높이 4m)를 발견하고 충돌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인줄을 연결해 진도 서방향 안전해역까지 예인조치 후 폐기처리 했다.

지난달에도 제주도 추자도 해안에 전남지역 김양식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 쓰레기 100여이 떠밀려오는 사건(2019년 4월 17일자 광주일보 10면)이 발생해, 전남과 제주도 간 해양쓰레기로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바다 위에 떠있는 부유물은 항해하는 선박에 2차 충돌사고로 이어진다”며 “해상중사자 스스로 폐어망과 오염물질은 육상으로 옮겨 폐기처리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해경이 최근 진도군 해상에서 김양식장에서 나온것으로 추정되는 목치 형태의 부유물을 예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후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모리온	아모리온 롱바디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드	비비드아모르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브라+슈트+거들+래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런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시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기공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